

이코노 & 비즈 피플

을 세계한상대회 회장 박종범 재유럽 한인총연합회장

“한상들 고국 청년실업 함께 고민해야”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한상(韓商)들이 이제는 고국의 지원을 바라기 전에 고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해야 합니다. 고국과 한상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3월 말 경주에서 개최된 세계한상대회 제24차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선출된 박종범 재유럽 한인총연합회장(57)은 “한국 청년들이 실업문제로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한상들이 고국 청년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해외로 청년 인턴을 데려가 취업 기회를 주고, 폭 넓은 경험을 쌓게 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한상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한상대회대회장을 거쳐 올해 역대 최연소 한상대회회장으로 선출된 박 회장은 광주 출신으로, 수년 새 무섭도록 성장하고 있는 한상 가운데 한 명이다. 유럽 지역에서 한상대회장이 선출된 것도 지난 2002년 한상대회가 출범한 이후 최초다.

조선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기업가정신에 입사했던 박 회장은 1999년 오스트리아에서 영산그룹이라는 무역법인을 설립했다. 현재 동유럽과 아프리카, 러시아 등 16개국에 28개 현지법인을 두고 연간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공한 한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오는 9월24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치러지는 제13회 세계한상대회를 총괄하게 되는 박 회장은 “지난해 광주에서 열렸던 한상대회가 성공했듯이 한상들의 네트워크 장으로서 올해에는 더욱 많은 한국 중소기업과 한상을 연결하는 장을 마련하고 싶다”며 “대회기간 동안 대륙별 투자환경 설명회는 물론, 유럽을 기반으로 한 한상인 만큼, 러시아와 CIS국가(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등)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상이 더욱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1세대 한상들이 동지를 틀 당시 기회의 땅이었던 북남미와 달리 유럽은 모든 시스템이 정제돼 있



16國 年1조원 매출 영산그룹 일귀 광주 출신...후배들 해외 취업 앞장 “을 대회 유럽기반 한상 참여 독려”

어, 이방인이 고전을 했던 곳”이라며 “그러나 한국인 특유의 근성과 노력으로 많은 한상들이 기반을 굳힌 데다 2세대 한상도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갖춘 만큼 한국 기업인과 유럽 한상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최근에도 영산그룹의 법인이 있는 오스트리아와 아프리카, 러시아 등에 조선대 후배 8명을 인턴으로 취업시켰다. 서울 지사 역시 최근 청년 직원 6명을 채용해 해외로 파견했다. 그는 “성공한 한상들은 고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패기로 뚫은 한국인의 피가 있다면 이들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최대 규모의 한상기업을 일군 박 회장은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장과 유럽 한인총연합회장을 맡아 한인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인문화회관 건립을 주도했으며,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 간 친선과 문화교류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로부터 한국인 최초로 금성 훈장을 받았다.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문화장달과 세계평화, 친선강화에 공로가 큰 이에게 수여하는 ‘평화의 불꽃상’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영산그룹 또한 무역업에서 제조업으로 기반을 바꿔 나가며 올해에만 러시아와 터키, 체코, 슬로바키아 등에 자동차 관련 산업 투자를 진행 중이다.

박 회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재 유럽인들을 중심으로 성금모금 계획도 밝혔다. 박 회장은 “최근 한국에서 비극적인 사고소식이 들려와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직업윤리와 개개인의 책임이 굳건히 자리 잡은 해외 선진국의 시민의식이 우리 사회에도 빨리 정착돼야 한다”며 “이달 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유럽한인체육대회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성금모금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임동홍기자 exian@/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7월부터 소득 하위 노인 70% 기초연금 月10만~20만원 지급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 제도 도입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여만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놨다는 점에서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 속에서 어렵사리 통과했다. 대선 당시 야당은 8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받는다는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금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인 긴 노인보다 상·하한액 범위에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상한액 20만 원을 주도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상한액 수급자로 편입됨에 따라 최대 406만 명이 월 2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금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을 제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연계를 반대하며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 연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 등의 대안을 순서대로 내놓으며 맞서왔다. 그러나 여야 간 협상이 장기화하자 새누리당이 이날 통과된 제정안의 내용과 같은 절충안을 최근 제시했고, 새정치연합이 이날 오후 의원 총회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의 처리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하면서 가까스로 통과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후 보건복지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를 잇달아 열어 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새정치연합 소속 박영선 위원장이 새누리당 간사인 권순득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불참한 가운데 열렸고 제정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표결 없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부동산 공시 실거래가 전환 추진

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공시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개편 방향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조사 비용을 낮추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6일 밝혔다.

1989년 도입된 현 제도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주택 유형별로도 실거래가 반영률이 달라 행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도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게 된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산정 등 각종 행정에 필수적인 정

보인 하지만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하는 흐름을 보이는데도 매년 이만한 예산을 들여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에 기반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006년부터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를 정부가 수집해왔는데 이를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실거래가 자료의 지역·유형별 현황, 연도별 등록 현황, 가격 수준 등을 분석한 다음 이 자료를 공시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또 실거래가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대량평가 모형의 설계안도 검토된다. 대량평가 모형이란 한꺼번에 여러 개의 지가를 뽑아낼 수 있는 산출 방식의 가리킨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 5년9개월만에 최저치

원·달러 환율이 간신히 1030원선을 지킨 채 마감했다. 그러나 종가 기준으로는 5년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2.9원 내린 달러당 1030.3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9일 기록한 연중 최저치(달러당 1030.6원)를 갈아치운 것으로, 2008년 8월 8일(1027.9원) 이후 5년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2원 내린 달러당 1031.0원에 개장하고서 3분만에 달러당 1032.6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소폭의 등락을 있었지만 대체로 하락세였다.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휴를 앞두고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조만간 환율 1,030원선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손은정 우리선물 연구원은 “특별한 상승 동력이 생기지 않는 한 머지않아 1030원선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업체의 재산성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美 매장 ‘커브드 TV 체험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최대 가전 유통업체 베스트바이 일부 매장에 커브드 TV 중심의 ‘삼성 엔터테인먼트 익스피리언스(SSE)’ 체험존을 흡인숍(매장 내 매장) 형태로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Advertisement for Hae-gam Nogari Hops. Features images of hops and a Hite beer mug. Text includes '나왔다!', '조라고 부르기엔 가까운 속살이 조동조동하고 부드러운 왕대구가 드디어 시판되었습니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ae-gam Nogari Hops.

Advertisement for a traditional Korean festival. Features a woman in traditional dress. Text includes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어',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이지에 우리옷 맞춤대어전문점'.